'다렌버그가 선보이는 미디엄 드라이의 고품격 리슬링'

다렌버그 드라이 댐 리슬링

The Dry Dam Riesling

지역	호주 〉 남호주 〉 맥라렌 베일		
포도품종	리슬링 100%		
알코올	10%	용량	750ml
시음 적정 온도	6-8℃		
테이스팅 노트	레몬, 라임 자스민, 호주 사과 품종인 그라니 스미스 등의 상큼한 아로마가 기분좋게 느껴지는 와인이다. 산도와 당도의 완벽한 밸런스가 인상적이며 영할 때 먹어도 좋으나 10년까지 숙성 시에는 새롭게 발현되는 토스티함, 마멀레이드 풍미 등을 느껴볼 수 있어 숙성을 추천하는 와인이다.		
페어링 TIP	해산물/채소(샐러드)/각종 치즈/디저트		

	DRY				SWEET
당도	1	2	3	4	5

	LIGHT				FULL
바디	1	2	3	4	5

제품설명

와인의 이름인 드라이 댐은 1992년, 드라이한 겨울에 댐을 만들었던 이웃의 모습에서 착안한 이름으로 농부였던 이웃에게는 문제가 된 메마른 댐이었으나 와이너리의 포도에는 좋은 영향을 끼쳤던 일화를 바탕으로 이름 붙였다. 와인 양조 과정에서는 작은 배치에서 부드럽게 으깬 후, 바구니로 압착하며, 저온에서 발효를 진행하는데 높은 미네랄리티와 산도와 잔당감의 밸런스를 완벽하게 구현할때까지 충분히 진행한다. 높은 수상 내역과 뛰어난 접근성을 자랑하는 다렌버그의 대표 화이트 와인 중 하나로 호주 리슬링이 선사하는 프레쉬함과 뛰어난 아로마가 매력적이다.

수상내역

2021빈티지 제임스 서클링 James Suckling 91점
2019빈티지 제임스 서클링 James Suckling 90점
2018빈티지 제임스 서클링 James Suckling 90점

와이너리

다렌버그는 남호주 대표 부띠끄 와이너리로, 전통적인 양조 방식을 고수하면서도 쉬라즈 & 비오니에를 블랜딩 하는 파격적인 시도와 스토리를 담은 독특한 제품명 등 호주에서는 독창성과 창의성을 인정받고 있는 와이너리이다. 다렌버그는 남호주 지역 프리미엄 레드 와인 생산지로 유명한 맥라렌 베일에 위치해 있으며 1912년 조셉 오스본(Joseph Osborn)에 의해 설립되어 현재까지 가족경영으로 운영되고 있다. Australia's First Fmailies of Wine (호주 가족 경영 와이너리)의 12개 와이너리 중 하나로 호주 와인 역사를 반영하는 와이너리로 인정받고 있으며 와인 & 스피릿(Wine & Spirit) 매거진으로부터 올해의 100대 와이너리로 총 4회 선정, 디켄터(Decanter) 매거진으로 부터 2017년 올해 방문해야 할 와이너리로 선정되었다. 레이블의 레드 스트라이프가 특징인 프리미엄 와이너리이다.

※ 와인의 이미지와 빈티지, 블랜딩 비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와인은 직사광선이 없는 서늘한 온도에서 뉘어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